2010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중세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과 불만이 싹텄다.
② 작년부터 그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③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을 인간 자신을 위하여 슬기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④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⑤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2. <보기>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 표기된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① 쇳조각, 냇물
② 바닷가, 맷돌
③ 조갯살, 콧병
④ 모깃불, 샛강
⑤ 나룻배, 곳간

3.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대문을 쿵 하고 닫으며 철수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아빠 : 친구와 ㉠<u>싸왔니</u>?
철수 : 경식이는 생일 선물로 멋진 모형 비행기를 ㉡<u>받았데요</u>.
아빠 : 네 바람대로 내년 생일에는 비행기를 선물해 주마.
철수 : 내년까지 ㉢<u>어떡해</u> 기다려요?
아빠 : 시월도 ㉣<u>넘어는</u> 갔으니까 두 달만 참아봐.
철수 : 난 당장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아빠 : 그럼 좋은 수가 있지. (방패연을 가지고 나오면서) 비행기가 별거냐? 하늘만 날면 ㉤<u>돼지</u>.

① ㉠ : '싸우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싸웠니'로 고쳐야 한다.
② ㉡ : '받았다고 해요'가 원말이기 때문에 '받았대요'로 고쳐야 한다.
③ ㉢ : '어떻다'의 부사형은 '어떻게'이므로 '어떻게'로 다듬어야 한다.
④ ㉣ : 보조사 '-는' 앞에는 체언이 와야 하므로 '너머는'으로 바꿔야 한다.
⑤ ㉤ : 어간 '되-'에 종결어미 '-지'가 바로 붙었기 때문에 '되지'로 표기해야 한다.

4. <보기>는 현행 로마자표기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할 때 로마자표기가 <u>잘못된</u> 것은?

<보기>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알약[알략] allyak
3. (생략)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① 거북호 Geobukho
② 낙동강 Nakdonggang
③ 왕십리 Wangsimni
④ 집현전 Jipyeonjeon
⑤ 학여울 Hangnyeoul

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1>

학습 목표	국어의 높임법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 개념	a. 주체 높임법 : 행위의 주체를 높인다. b. 객체 높임법 : 행위의 대상인 객체를 높인다. c. 상대 높임법 : 대화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춘다.

<보기 2>

학습 예문	㉠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u>오셨다</u>. ㉡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u>있으시겠습니다</u>. ㉢ 냉큼 이리 따라 <u>오게</u>. ㉣ 나는 수업 중에 생긴 의문을 늘 선생님께 <u>여쭙는다</u>. ㉤ <u>선생님께서</u>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① ㉠ : 주체 높임법은 용언어간에 '-시-'를 붙여 행위의 주체를 높인다.
② ㉡ : '있으시다'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한다.
③ ㉢ :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④ ㉣ : 객체 높임법은 특수한 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⑤ ㉤ : 높임의 뜻으로 주격 조사 '-이, -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한다.

6. <보기>의 사전적 뜻풀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문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부치다[2] 타
1.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2.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3.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4.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5. 마음이나 정 따위를 다른 것에 의지하여 대신 나타내다.
6.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① 그는 논을 부쳐 먹고 살았다.
② 나는 이번 사건을 재판에 부쳤다.
③ 그 돈은 즉시 우편으로 부쳐 드리리다.
④ 그녀는 슬픈 심정을 시에 부쳐 나타냈다.
⑤ 나는 며칠 민박집에서 몸을 부치고 있었다.

7. <보기>는 학생이 쓴 일기의 일부이다. 고쳐쓰기를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008년 3월 15일
요새 할머니는 자주 ㉠조신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금세 코를 골며 주무시고, 어떤 때는 친구 분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무시기도 하신다. 엄마는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

2008년 7월 10일
여름 장마에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도와야 한다. 그래서 푼푼히 모은 내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려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 ㉢보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수해 복구에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2008년 11월 17일
오늘 길을 가다 만 원을 주워 웬 떡이냐 싶어서 친구와 햄버거도 사 먹고 탁구장에도 갔다. 돈을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어젯밤에 아빠한테 받은 용돈 만 원을 ㉣넣어 두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내가 떨어뜨린 걸 주워서 공짜가 생겼다고 좋아했다니. ㉤웬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① ㉠ : 부정적 의미가 강하므로 '자신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② ㉡ : 손윗사람에게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높임말인 '연세'를 쓰면 좋겠어.
③ ㉢ : 체언 뒤에서 둘을 비교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므로 '그것'과 붙여 써야 해.
④ ㉣ :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앞에 '주머니에' 정도의 말을 첨가하는 것이 좋겠어.
⑤ ㉤ : '어찌 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왠지'로 고쳐 써야 해.

8. 전자 CD-ROM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보기>처럼 '막-'과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여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단계>
[표제어 '막-' 찾기]

막-[1] 접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친', '품질이 낮은',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막-[2] 접 '마지막'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단계>
['막-'이 들어가는 단어 검색]

막걸리 :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
막둥이 : 막내 아들을 귀엽게 이르는 말.
막되다 : 말이나 행실이 버릇없고 난폭하다.
막말 :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하는 말.
막잔 : 마지막 잔.
막지르다 : 앞질러 가로막다.

① '막걸리'의 '막-'은 '막-[7] 1'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
② '막지르다'의 '막-'은 '막-[7]'과 '막-[8]' 모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③ '막말'의 '막-'과 '막잔'의 '막-'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④ '막되다'는 '막-[8]+되다'이며, 파생어임을 알게 되었다.
⑤ '막둥이'의 '막-'은 '막-[8]'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

9. <보기>의 개요를 고려하여 글을 쓸 때, '본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제제기 : 도로를 증설하지 않고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는 없을까?
서　　론 : 도로망의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의 한계
본　　론 : 1. 교통 체증으로 인한 문제
(1) 에너지의 낭비
(2) 환경오염
(3)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의 유발
2. 교통 체증의 원인
(1) 교통량의 증가
(2) 교통 신호 체계의 미흡
(3) 운전자의 잘못된 의식
3. 교통 체증의 완화 방안
(1) 제도 보완을 통한 교통량의 감소 유도
(2) 교통 신호 체계의 개선
(3) 운전자의 의식 계도
결　　론 : 다각적 측면에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강조

① 낡은 도로를 정비하고 이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
② 운행 일수가 적거나 카풀을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과 보험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③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연비가 낮아져 자동차 연료의 소모량이 증가한다.
④ 정체된 교차로에서 자신만 빨리 가겠다는 운전자의 심리로 '꼬리물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진다.
⑤ 직진과 좌회전 신호로 이루어진 현행 신호 체계를 직진 위주로 바꾸면 정체 구간에서 자동차 주행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
2. 대구 표현을 사용할 것
3. 완곡하게 표현할 것

① 좋은 물 좋은 건강. 나쁜 물 나쁜 건강.
② 새는 물, 새는 살림. 알뜰 살림하듯 물을 절약합시다.
③ 돈을 물처럼 쓰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의 경제는 파탄 납니다.
④ 오늘 풍부하다고 내일도 풍부할까요? 물 걱정 없는 미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⑤ 물을 함부로 쓰면 강도 말라갑니다. 우리나라를 강 없는 금수산으로 만드시겠습니까?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궁궐은 궁성(宮城)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 구역은 내전(內殿), 외전(外殿), 동궁(東宮), 생활주거공간, 후원(後苑), 궐내각사(闕內各司), 궁성과 궁문 및 궐외각사(闕外各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전은 왕과 왕비의 공식 활동과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위치상으로 궁궐의 중앙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서도 궁궐의 핵을 이루는 곳이다. 내전은 크게 보아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으로 구성된다. 대전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왕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집을 연거지소(燕居之所)라고 하며, 이곳은 궁궐의 핵심을 이룬다. 중궁전은 왕비의 기거 활동 공간으로 궁궐 중앙부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차지한다. 궁궐에 따라서는 내전에 포함되기도 하고 외전에 포함되기도 하는 ⓐ편전(便殿)은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서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곳이다.

외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식, 연회 등의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다. 외전의 중심인 ⓑ정전(正殿)은 궁궐에서 외형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여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건물이다. 정전은 회랑(回廊)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회랑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넓은 마당이 조정(朝廷)이다. 조정이란 말뜻 그 자체로는 왕과 신료들이 모여 조회(朝會)를 하는 뜰이다. 그러나 조회뿐만 아니라 외국 사신을 응대하기도 하고 그 밖에 각종 잔치를 벌이는 등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다.

왕세자는 떠오르는 해처럼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왕세자의 활동 공간인 ⓒ동궁은 내전의 동편에 배치하였다. 동궁은 왕세자가 활동하는 공간의 이름이지만, 왕세자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동궁 일대에는 세자를 교육하고 보필하는 업무를 맡았던 관서 등이 함께 있었다.

궁궐에는 왕과 왕비, 왕세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후궁, 왕자, 공주 등 왕실 가족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 내시, 궁녀, 노복, 군병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야 궁궐이 유지된다. 이들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 곳은 위치상 내전의 뒤편에 배치된다. 이곳은 내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뚜렷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생활주거공간' 정도로 명명하면 될 것이다.

후원은 궁궐의 북쪽 산자락에 있는 원유(苑囿)를 가리킨다. 그 위치를 따라서 북원(北苑)이라 하기도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금원(禁苑)이라 불렀다. 후원은 일차적으로 왕을 비롯해서 궁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다. 하지만 과거 시험장, 군사 훈련장, 종친 모임의 장소 등으로도 쓰였다.

궐내각사는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들로, 궁궐 안에 들어와 활동하는 관리들의 공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정치와 행정 업무를 맡은 기구, 경비와 호위 등 군사 관계 업무를 맡은 기구, 왕실 시중과 궁궐의 시설 관리를 맡은 기구 등이 있었다.

궐외각사는 궁궐의 정문 앞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 국가의 핵심 관서들을 말한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육조, 사헌부, 한성부 등 관료 기구의 중추를 이루는 관서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늘어서 있었다. 이 거리를 흔히 ⓔ육조 거리라 불렀다. 이곳에 배치된 관서들은 궁궐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궁궐의 정치·행정적 기능과 비중은 궐내각사의 구성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궐외각사를 함께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11. 위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물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궁궐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② 궁궐은 언제 생겼고 어떻게 변해 왔는가
③ 궁궐은 어떻게 짜여 있고 그 쓸모는 무엇이었는가
④ 궁궐의 터를 결정하는 데 풍수지리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⑤ 궁궐 안의 생활은 궁궐 밖 서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달랐는가

12. 위 글의 진술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우리 축구팀이 우승한 것은 혹독한 체력 훈련을 이겨 낸 데다가 뛰어난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받아 과학적인 전술을 익힌 결과라고 생각한다.
② 민속학은 선조들의 행위와 습관, 예의, 신앙 등을 그대로 존속시킬 목적으로 그것들의 발생 배경, 전승 과정, 특징, 의의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③ 길 오른편은 가파르게 경사진 땅이요, 왼편은 소나무 숲이었다. 이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다. 여름이면 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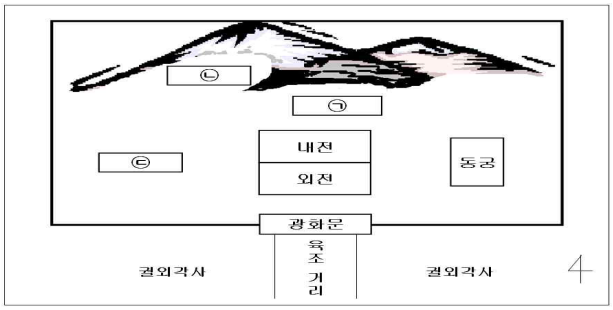
뱀딸기 덩굴로 해서 거의 덮이다시피 되는 길이었다.

④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일반적으로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된다. 정악은 궁중이나 선비들이 즐기던 아정한 음악을 말하고, 민속악은 판소리, 산조, 민요, 농악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던 음악을 말한다.

⑤ 비행기의 날개와 몸통을 연결하는 나사못들이 하나씩 빠지다 보면 결국 비행기의 날개와 몸통이 분해될 수밖에 없듯이, 생태계의 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생물종들이 하나씩 멸종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건물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	㉢
① 궐내각사	생활주거공간	후원
② 생활주거공간	궐내각사	후원
③ 후원	생활주거공간	궐내각사
④ 생활주거공간	후원	궐내각사
⑤ 궐내각사	후원	생활주거공간

14. ⓐ~ⓔ 중, <보기>의 경우에 부합하는 것은?

<보기>

어휘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어휘는 원래부터 갖던 의미에서 주변의미가 파생된다. 이것을 의미확대라고 한다.

① ⓐ 편전 ② ⓑ 정전 ③ ⓒ 동궁
④ ⓓ 금원 ⑤ ⓔ 육조 거리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귑니다.

앞강(江)물, 뒷ⓑ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15. (가)~(다)에 드러난 화자의 공통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한 경건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원망과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과 헤어져 겪게 되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⑤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대상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음보 배열의 변화를 통해, (나)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는 내면 심리에서 외적 상황으로,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가)는 절제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나)는 슬픈 추억을 회상하는 어조이며, (다)는 잔잔하고 담담한 어조이다.
⑤ (나)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다)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17. (나)의 ㉠~㉤ 중,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18. ⓐ~ⓔ 중, <보기>의 밑줄 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그 감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통해 객관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사물이나 사건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나)와 (다)의 별이 지니는 공통 의미로 알맞은 것은?

① 고독과 비애의 세계를 표상
② 고뇌와 갈등의 세계를 표상
③ 소망과 희망의 세계를 표상
④ 신비롭고 낭만적인 존재를 표상
⑤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표상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윤리학의 특성을 매우 잘 드러내는 예는 홉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연적 능력의 총체인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선이라 규정하고 자신이 혐오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한 후, 철저히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장치나 명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개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이기적인 개인들은 상대방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서로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만인 대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인다. 하지만 이런 자연 상태에서 계속되는 공포와 폭력,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자신

㉠

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을 통해 효력을 얻는 자연법에 따름으로써 국가를 형성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국가란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이 양도한 자연권을 근거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유일한 의지의 형태로 표명되어야 하며 지상의 신과 같은 존재자여야 한다.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의해 변경·몰수되거나 문책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가의 통치권은 결코 나누어지거나 쉽게 양도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은 통치권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혼란과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홉스도 절대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끝없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절대 권력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중세의 잔재를 지닌 듯 보이는 홉스의 이론이 어떤 의미에서 근대 윤리학의 출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가?

우선 홉스가 내세운 이기적 개인은 이전의 어떤 권위나 질서, 외부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권위와 질서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근대인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다. 의존할 만한 권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은 곧 당시의 도덕적 상황이 혼란스러웠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체계의 수립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홉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탄생하는 세속적 권력을 새로운 질서의 궁극적 근거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지배 능력이 홉스에 이르러 중요한 계기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홉스는 인간의 자기통제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기적 인간들이 자기통제보다는 이기적 욕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에 의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홉스의 이기주의 윤리학은 기존질서가 붕괴된 혼란 상태에서 오직 자기통제 능력을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근대적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다. 동시에 그 질서가 이기적 인간들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근대 윤리학이 처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매우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20. 위 글에서 홉스가 규정한 인간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은 사회적 공동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이다.
② 인간은 외부권력이나 종교적 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다.
③ 인간은 자기통제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
④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선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양도하지 않는 존재이다.

21. 위 글에 나타난 국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한다.
② 국민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신과 같은 존재자이다.
③ 자연 상태의 인간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방지한다.
④ 절대 권력에 의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인간을 통제한다.
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도 불사한다.

22. <보기>에서 ⓐ, ⓑ와 각각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ㄱ.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지 주인은 아니다.
ㄴ.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와 같은 존재이다
ㄷ. 최악의 정부도 무정부의 자연 상태보다는 낫다.
ㄹ.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ㄱ

23. ㉠에서 추론할 수 있는 홉스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력 투쟁에 앞장서는 홉스
②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홉스
③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홉스
④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홉스
⑤ 사회적 변혁기에 고민하는 홉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최소의 의미단위라고 하는 형태소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듣는다'의 '듣-'의 경우, '듣고, 듣지'에서는 [듣-]으로 나타나지만 '들어라, 들으니'에서는 [들-]로 나타나고, '듣는다'에서는 [든-]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한 형태소가 그 뒤에 어떤 소리가 오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값이, 값도, 값만'에서 '값'이 각각 [㉠, ㉡, ㉢]으로 달리 나타나는 일도 이와 같다. 이처럼 한 형태소가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이 달라지는 현상을 교체(交替)라고 하며, 그러한 교체에 의한 이종(異種)들 하나하나를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 사이에는 몇 가지 특별한 관계가 성립한다. 우선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듣고, 들어라, 듣는다'에서 '듣-'의 발음이 [듣-, 들-, 든-]으로 달라져도 '듣-'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相補的 分布)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A는 환경 X에만 출현하고 B는 환경

X에 절대 출현하지 않을 때, A와 B는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들-'은 '들어라, 들었다, 들으니'에서처럼 모음 앞에만 놓이고, '듣-'은 '듣는다, 듣는, 듣노라'에서처럼 'ㄴ'과 같은 비음 앞에만 놓이고, '듣-'은 '듣고, 듣지'에서처럼 비음 이외의 자음 앞에만 놓이므로 '들-, 듣-, 듣-'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이상에서 보면 ⓐ어떤 형태들이 서로 의미가 같고 그 분포가 상보적이면 그들이 한 형태소로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반드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② '나무, 어머니, 고기, 고래, 구름, 하늘'은 각각이 형태소이다.
③ '뛰다'의 '뛰-'와 '달리다'의 '달리-'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이다.
④ '웃다'의 '웃-'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음상이 달라지므로 교체 현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⑤ '강'은 주위 환경이 바뀌더라도 음상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25.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①	갑	값	갚
②	갑	값	감
③	값	갑	갚
④	값	갑	감
⑤	값	갚	갑

26. ⓐ를 바탕으로 할 때,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병기는 책을 보고 서희는 영화를 감상한다'의 '-을'과 '-를'
② '왕은 날마다 행복했으나 왕비는 나날이 슬퍼했다'의 '-은'과 '-는'
③ '고양이가 생선을 훔쳤다'의 '-가'와 '공작이 날개를 펼쳤다'의 '-이'
④ '영희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의 '-에'와 '영희가 윤재에게 물을 주었다'의 '-에게'
⑤ '윤규는 수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의 '-에게'와 '윤규는 수미한테 꽃을 주었다'의 '-한테'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한때 종루(鐘樓)의 저잣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했다.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거지 아이들이 함께 구걸하러 나갔으나, 그중 한 아이만 병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거듭 흐느끼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은 너무나 불쌍해서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다. 그런데 병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니 그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 보고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함께 광문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 광문은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그 집 개를 놀라게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원수를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요. 영감님께서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였다. 그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은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줄을 알고서 새벽녘에 그를 풀어 주었다.

광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았더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다리 밑으로 던져 버렸다. 광문은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몰래 짊어지고 갔다. 그러고는 서쪽 교외의 공동묘지에다 묻고 나서, 통곡하기도 하고 무어라고 중얼거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캐물으니, 광문은 그제야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모조리 아뢰었다. 집주인은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광문을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그런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약국의 부자가 대문을 나서다 말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찬찬히 살펴본 다음 대문을 나서 가버렸는데, 마음속으로는 몹시 꺼림칙한 눈치였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화들짝 놀라며, 광문을 뚫어져라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또한 감히 그만두고 떠나버리지도 못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접때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안 계시기에 스스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습니다.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걸요."

하였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몹시 부끄러워하며 사과하기를,

"내가 속 좁은 사람이로다. 점잖은 어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앞으로 자네를 볼 낯이 없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 두루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중략)

㉢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도 역시 웃통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금을 그어 마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들도 웃고 말아서, 다들 흩어져 가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여전히 머리를 땋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사람들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요. 하지만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라 해도 그렇소. 그러니 나는 못생겨서 스스로 용모를 꾸며 보일 수도 없다오."

하였다. 남들이 집을 마련하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마련해서 무얼 하겠소?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장타령을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데, 한 양 안에 가구가 자그마치 팔만 호라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처소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구요."

하고 사양하였다.

-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원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구체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④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⑤ 비속어를 사용하여 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8. 위 글에 등장하는 광문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겸손하다
② 부지런하다
③ 인정이 있다
④ 재치가 있다
⑤ 자기 분수를 안다

29. ㉠의 상황이 잘 나타난 것은?

①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ᄃᆡ 일천석(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 돗대도 것고 치도 빠지고 ᄇᆞ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ᄌᆞ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믄ᄃᆡ 사면이 거머어득 져뭇 천지적막 가치노을 ᄲᅥᆺ는ᄃᆡ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

②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두러메고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섚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집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슭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닙담배 퓌여 물고 콧노래 조오다가

③ 기를 여라믄이라 기르되 요 기ᄀᆞᆺ치 얄믜오랴 뮈온 님 오게 되면 쏘리를 회회 치며 치쒸락 나리쒸락 반겨셔 닉닷고 고은 님 오게 되면 뒷발을 바등바등 므로락 나오락 캉캉 즛는 요 도리암키

④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ᄋᆞ스슥하는 동난지이 사오

⑤ 바롬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ᄅᆞ미도 다 쉬여 넘는 고봉(高峯) 장성령(長城嶺) 고기

30. ㉡의 상황에 적절한 속담은?

① 벙어리 냉가슴 앓는구나.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군.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이지.
④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네.
⑤ 사흘 굶어 남의 담 넘지 않는 놈 없는 거야.

31. ㉢에서 '광문'과 '싸우는 자들'의 표정을 떠올릴 때 가장 적절한 것끼리 연결한 것은?

	광문	싸우는 자들
①	짐짓 괴로운 표정	불쾌한 표정
②	짐짓 심각한 표정	어이없는 표정
③	애써 웃는 표정	황당한 표정
④	일부러 절망하는 표정	난감한 표정
⑤	고통스러운 척하는 표정	반기는 표정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중반 이후 표준적 과학기술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표준적 과학기술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비판과 도전에 대해 흔히 다음 두 가지 논리로 응수한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선용(善用) 대 악용(惡用)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참된 과학 대 사이비 과학'의 이분법이다. 전자는 과학기술의 내용 자체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가치중립적이라 간주한다. 다만 사회적 구조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에 따라 과학기술을 사회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방어 논리인 후자는 과학적 지식 중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이비 과학이며, 이런 사이비 과학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욱이 이 논리의 신봉자들은 설사 현재의 과학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이비 과학을 계속 제거하다보면 언젠가는 과학이 완벽해지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참된 과학적 지식은 가치의 오염과 무관하므로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사이비 과학만이 그러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적 과학기술관의 방어 논리는 근대 과학기술을 보편적 이성의 화신(化身), 즉 야만과 구분되는 문명의 징표로 신비화한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비판도 허용치 않는 '암흑 상자'가 되어 버리고, 오직 과학기술 엘리트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권력 관계에서도 심각한 의미를 함축한다.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이자 비극인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분화와 전문가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여기서 재생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가 과학기술 엘리트를 포섭하여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사회학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 즉 인간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평범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때 과학기술사회학자들은 과학기술이 보편적이라는 가정을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이한 지역, 계급, 성(性), 종족, 집단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과학기술의 가변성과 국지적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사회학의 목표는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암흑 상자 열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학자들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근대 과학기술의 탈신비화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탈신비화가 결코 근대 과학기술이 허구라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여러 해석 중 특정한 해석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 선택된 해석의 틀은 사회적 맥락에서 훈련된 것이며, 그렇게 선택된 해석은 과학기술자 집단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의해 재생산된다. 따라서 참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이 사회 문화적 산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사회학에 따르면, 근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바람직한 유일한 과학기술이 아니기에 대안적 과학기술을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사회학은 인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봉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재구성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통찰은 서구 근대 과학을 유일한 진리이자 진보의 담지자라고 신봉했던 단일적·권위주의적인 과학 질서에서 인류의 다양한 과학과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원적·민주주의적인 과학 질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의 일부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오늘날 과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②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한다.
③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과학의 무한한 발전을 도모한다.
④ 과학은 다른 학문과의 경계를 뚜렷이 하면서 과학의 독자성을 확보한다.
⑤ 과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33. ㉠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학은 언젠가는 완벽해질 것이다.
② 과학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③ 과학이 악용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④ 과학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⑤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만든다.

34. ㉡과 관련이 <u>없는</u> 것은?

① 과학은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지향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가변성과 국지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③ 과학이 사회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허구이다.
④ 표준적 과학은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과학 기술 엘리트들만이 과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 더욱이 와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어휘가 <u>아닌</u> 것은?

<보기>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① 그는 <u>해죽이</u> 미소를 지어 보였다.
② 그녀의 콧날은 <u>오뚝이</u> 도드라졌다.
③ 그녀가 <u>생긋이</u> 웃으며 내 옆을 지나갔다.
④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u>깨끗이</u> 거절하였다.
⑤ 나는 <u>일찍이</u> 그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ᄒᆞᆫ고
녯 사ᄅᆞᆷ 풍류(風流)ᄅᆞᆯ 미출가 ᄆᆞᆺ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앒픠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ᄂᆞᆫ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ᄂᆞᆫ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春氣)ᄅᆞᆯ ᄆᆞᆺ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ᄋᆡ 다ᄅᆞᆯ소냐
시비(柴扉)예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ᄒᆞ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ᄒᆞᆫᄃᆡ
한중진미(閒中眞味)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나)
ᄉᆞᆷ은 든ᄂᆞᆫ 대로 듯고 벼슨 ᄲᅬᆯ 대로 ᄲᅬᆫ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ᄃᆡ셔 길 가ᄂᆞᆫ 소님닉 아ᄂᆞᆫ ᄃᆞ시 머무ᄂᆞᆫ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위백규, 「농가(農歌)」 -

(다)

원슌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ᄉᆞ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딘한림(陳翰林) 솽운주필(雙韻走筆)
튱긔딕칙(冲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댱(試場)ㅅ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엽(葉) 금흑ᄉᆞ(琴學士)의 옥슌문싱(玉笋門生) 금흑ᄉᆞ(琴學士)의 옥슌문싱(玉笋門生)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 (1장)

당당당(唐唐唐) 당츄ᄌᆞ(唐楸子) 조협(皂莢) 남긔
홍(紅)실로 홍(紅)글위 ᄆᆡ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뎡쇼년(鄭少年)하
위 내 가논 ᄃᆡ 놈 갈셰라
엽(葉) 샥옥셤셤(削玉纖纖) 솽슈(雙手)ㅅ길헤 샥옥셤셤(削玉纖纖) 솽슈(雙手)ㅅ길헤
위 휴슈동유(携手同遊)ㅅ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8장)

- 한림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 -

36.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화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
③ 화자는 대상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7.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를 비판할 때 들려줄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룸 비치 조타 ᄒᆞ나 검기롤 ᄌᆞ로 ᄒᆞᆫ다
ᄇᆞ람 소리 묽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ᄂᆞᆫ 믈ᄲᅮᆫ인가 ᄒᆞ노라
②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ᄲᅳᆫ 묽은 물에 산영(山影)조ᄎᆞ 잠겻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듸오 나ᄂᆞᆫ 옌가 ᄒᆞ노라
③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몯 뵈
고인(古人)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퓌 잇닉
녀던 길 알퓌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④ 내 언제 신(信)이 업서 님을 언제 소겻관ᄃᆡ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ᄠᅳᆺ이 젼혀 업닉
추풍(秋風)에 디ᄂᆞᆫ 닢 소리야 낸들 어이ᄒᆞ리오
⑤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믈 깁고 아히ᄂᆞᆫ 밧츨 가니
뒷뫼헤 엄기ᄂᆞᆫ 약(藥)을 언제 킈랴 ᄒᆞᄂᆞ니

38. (가)를 바탕으로 하여 전시회에 출품할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리려고 할 때,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흥에 겨워 지저귀는 듯한 새를 그려야겠어.
②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장면을 그려야겠어.
③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곳에 초가집과 정자를 그려야겠어.
④ 버드나무, 복숭아꽃, 살구꽃, 풀이 비에 촉촉이 젖은 모습을 그려야겠어.
⑤ 소박하고 가벼운 옷차림의 양반들이 모여 시를 짓는 모습을 그려야겠어.

39.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거리가 <u>먼</u> 것은?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각 연에서 동일한 통사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40. <보기>의 관점에서 (다)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① 그네 타기의 흥취가 어떤지 느껴 봐야지.
② 정형화된 형식이 주는 효과를 조사해야지.
③ 작품을 낭송해 보고 운율을 파악해 봐야지.
④ 작품에 인용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해야지.
⑤ 작품에 나타난 정서가 오늘날 문학적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알아 봐야지.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후의 생계보장을 자발적이며 사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처럼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후의 생계보장이라는 문제에 정부가 간여하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따라서 정부의 비대화(肥大化)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정부의 강제적이고 공적인 프로그램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먼저 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해결방식이 필요한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u>온정적 간섭주의</u>를 내세우고 있다. 즉, 개인들에게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한 준비를 맡겼을 때 부적절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가 모든 경제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즉 ⓑ<u>소비자 주권</u>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이 논리가 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강제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공적 해결방식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 근거들은 주로 효율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우선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적 프로그램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사적 보험보다 유리하다.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여럿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험의 공동부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은 더 커진다. 따라서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공적 프로그램의 경우 이득이 극대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은 사적 보험보다 더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역선택의 상황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그 결과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불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가 노후의 생계와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적 프로그램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는 보유자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적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보험료가 보장되고 사회보장세 등을 통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적 프로그램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적 보험보다 더 좋은 노령연금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게다가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관련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명백하게 행정비용으로 드러난 것 이외의 다른 행정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도 4%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행정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명목임금이 상승하여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공적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반면에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해 보험 혜택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효율성의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보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에 뒤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적 프로그램이 갖는 상대적 우위는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만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 생활의 보장에 있다.
② 공적 프로그램은 사적 프로그램보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
③ 공적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제적이고 공적이라는 것이다.
④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프로그램보다 더 우월하다.
⑤ 공적 해결방식이 사적 해결방식보다 낫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42. <보기>에서 ⓐ와 ⓑ에 각각 관련된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와 자유에 합치되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때 현물보조보다는 현금보조가 더 경제적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보조할 때 술이나 도박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가급적 쌀과 같은 식량 형태의 현물보조를 실시한다.
ㄷ.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ㄹ.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급전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온정적 간섭주의	ⓑ 소비자 주권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4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봉장과 과수원이 근처에 있으면 양봉장의 경우 꿀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과수원에서는 벌에 의해 수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과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적정한 수의 소화기를 구입하지 않는다. 소화기의 구입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③ 범람할 위험이 높은 강가에 거주하는 가정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곳에 살면서 훌륭한 경관을 즐기려 한다. 만약 강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아이 봐주는 사람은 아이가 그 아이의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도록 버려둔다. 보다 교육적인 놀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이득이지만 아이 봐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힘이 들기 때문이다.
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보다 그 차의 결점에 대해 더 잘 안다. 일반적으로 나쁜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차를 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겉만 멀쩡한 중고차를 사게 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차 사기를 꺼린다.

44. ㉡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돌려받기로 계약한 사적 프로그램이 공적 프로그램보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② 사적 프로그램이 공적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반영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③ 사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이후에 약정된 일정액을 보장받는 계약이 대부분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에는 나중에 돌려받게 될 보험혜택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④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공적 프로그램에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더라도 실질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보험혜택은 늘어난 보험료로 인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봉급생활자의 형편이 좋아지고 자영업자의 형편은 나빠지게 되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적 프로그램이 보험혜택의 실질가치라는 측면에서 봉급생활자에게 더 유리하다.

[45-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港口)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 구보는 한구석에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4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②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생동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중요한 상징적 장치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작중 인물의 연상과 회상을 통해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6. 위 글의 '구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병적인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
② 심리가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화한다.
③ 도심 속에서 길을 잃고 당황해 한다.
④ 도시 빈민층의 삶에 유독 관심이 많다.
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47. 위 글에서 '구보'가 느낀 고독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리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에
② 아무런 희망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 때문에
③ 타인들과의 인간적 유대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④ 일상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농촌으로의 회귀를 꿈꾸기 때문에
⑤ 시대적 현실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48.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u>없는</u>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새벽 2시경 귀가하기까지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u>구보가 떠올리는 생각들이 자유로운 연상에 의해 기술</u>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9. Ⓐ~Ⓔ 중,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기>

모더니스트들은 소설 쓰는 과정 자체를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데, 이를 두고 미적 자의식이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0. <보기>를 참고하여, 맥없다와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 합성어가 <u>아닌</u> 것은?

<보기>

합성어는 두 가지 이상의 어간이 붙어서 생긴 단어이다. 합성어의 종류에는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부사 등이 있다. 이 중에 합성동사는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사+조사+동사'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다.

① 겁나다 ② 등지다 ③ 본받다
④ 앞서다 ⑤ 얕보다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